

무등산 국립공원

MUDEUNGSAN NATIONAL PARK

종합안내



종합안내

무등산국립공원은
도심의 녹색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공원입니다.

한반도 서남부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국내 21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최고봉은 천왕봉이며 높이는 1,187m, 총면적은 75.425㎢입니다.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 여름에는 물봉선과 산수국,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 생태경관이 우수한 무등산국립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속에는 4,063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가사문화권을 비롯한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전체적인 모습은 노출암이 돔 모양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 마치 임신한 어머니의 배처럼 보입니다. 이 노출암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으로 빙하기를 거쳐 너덜이 만들어진 후 현재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무등산의 응회암은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의 정상부와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에 형성되면서 크고 높은 주상절리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은 역사적으로 군사 요충지이자, 조선시대에는 가사문학의 정수가 섰었으며, 임진왜란 때 많은 의병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때에는 의병활동의 거점이 되었고, 호남의 정신적 자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국민들이 이러한 우수한 경관·지형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무등산의 역사, 문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이라는 명칭은 백제 때는 무진악, 통일신라 때는 줄임말 무악으로 표기하다가 고려시대 이래 서석산과 함께 무등산이라는 말이 두루 쓰이게 되었습니다. 무등산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또는 '등금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로 광주라는 대도시의 녹색허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연 휴식처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무등산국립공원

경관자원

서석대

해발고도 1,000m에 자리 잡은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높이 30m, 너비 1~2m의 돌기둥 200여 개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주상절리대입니다. 약 8,7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저녁노을이 물들 때 햇빛이 반사되면 수직처럼 강한 빛을 발하며 반짝거린다 하여 '서석의 수정병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입석대

장봉지에서 서석대 방향으로 400m쯤 오르다 보면 주상절리대의 하나인 입석대가 나타납니다. 높이가 약 10~18m이고, 기둥면이 2m 이내의 5각 또는 6각 기둥 30여개가 동서로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돌기둥 사이의 틈에는 이끼와 풀꽃들이 자라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냅니다.



규봉(광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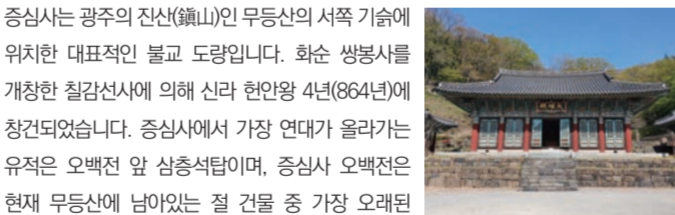
규봉암 사할을 둘러싸고 있는 일대의 층암괴석을 규봉(광석대)라고 하는데 지로 전 듯 미려질한 돌기둥이 솟아 있어 입석대와 닮았지만 돌기둥의 무리가 입석대보다 큰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화순군 이서면에 속하며 이곳 규봉은 입석대, 서석대와 함께 무등산 3대 석경 중 하나입니다.

시무지기폭포



전라도 방언으로 '시'는 세 개를 뜻하고 '무지기'는 무지개를 뜻하는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면 세 개의 무지개가 뜨는 곳이라 하여 '시무지기폭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폭포는 무등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로 비가 온 뒤 약 70m의 물줄기가 장관을 이룹니다.

증심사



증심사는 광주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대표적인 불교 도량입니다. 화순 쌍봉사를 개창한 칠감선사에 의해 신라 헌안왕 4년(864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증심사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유적은 오백전 앞 상충석탑이며, 증심사 오백전은 현재 무등산에 남아있는 절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조선시대에 오백전이 지어진 절은 호남지방에서 증심사가 유일합니다.

풍암정

원호 계곡 하류에 위치한 풍암정은 분청사기 도요지에서부터 단풍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5호로 지정된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의 아우인 김덕보가 세운 정자입니다. 풍암(楓巖)은 단풍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라는 의미이며 김덕보의 호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형제들은 잃고 그는 이곳에서 은둔생활을 하였습니다.



도심 속 야생생물 서식처

생태자원

무등산국립공원에는 식물 1,732종, 동물 1,698종(포유류 32종, 조류 133종, 어류 29종, 양서파충류 27종, 곤충류 1,477종), 기타 653종 등 총 4,083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로는 수달을 비롯해 29종(동물 23종, 식물 6종)이 있습니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한해 평균 300만명의 탐방객이 입장하는 곳으로 인위적 간섭에 의한 생태교란 가능성이 큼니다.



수달 Lutra lutra, 담비 Martes flavigula, 팔색조 Ptilinopus, 쌍고리부전나무 Spindos takonensis

대표 야생생물

구분	주요자원
식물자원	주요 식물상 소나무, 산딸나무, 굴참나무, 노각나무, 평야바람꽃, 반산바람꽃, 발개미취, 백미꽃 등
	주요 식물군락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줄참나무-상수리나무군락, 산철쭉군락, 억새군락, 관민아주리군락 등
동물자원	고등군류 무등와재비섯, 노린치벌 등
	포유류 청설모, 다람쥐, 너구리, 담비 등
	조류 작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논병아리, 귀재비 등
	양서류 이끼도롱뇽, 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등
	파충류 도마뱀,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어류 배들치, 갈겨니, 각사령이, 긴물개, 참갈겨니 등	
곤충 산바퀴, 참말벌, 풀하루살이, 한지유령거미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29종)	수달, 조롱이, 남생이, 구렁이, 상재비, 물장군, 가시오갈피나무, 산적약, 으름난초, 석곡, 솔밭꽃, 대홍련 등

깃대종

국립공원에서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달 Lutra lutra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국내 하천단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생물로서 무등산 일원 계곡, 수원지 등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털조장나무 Lindera sericea
관목성 식물로 관상가치 및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국립공원에서는 무등산에만 확인되고 있는 종입니다. 생강나무와 꽃이 피는 시기와 모양이 비슷하여 쉽게 헷갈리 특징입니다.

백마늪산 신갈떡

무등산을 느끼는 편안한 길

힐링로드

힐링로드 제1코스

의병길 편 | 3.7km, 1시간 30분

선조들이 의병 활동 시 다녔던 풍암계에서 제철유적지까지의 옛길을 문화 탐방 코스로 재현한 의병길코스는 예부터 이용했던 생활길 위주로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병길은 구간 곳곳에 풍암정, 치마바위, 사당소, 제철유적지 등 역사적 사실과 전설이 있는 문화자원이 많아 알찬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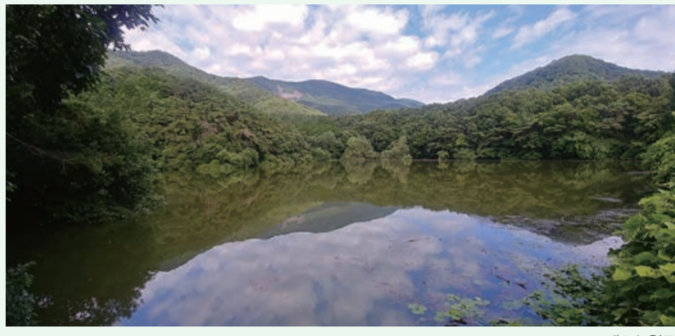


풍암계

힐링로드 제3코스

편백나무숲 편 | 2.8km, 1시간 30분

중심사 버스종점에서 증심탐방지원센터 뒤편을 따라 오르면 제1수원지와 편백나무 숲을 만나게 됩니다. 물오리가 물 위에 그리는 물자라는 어떤 천재 화가의 붓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천연의 동선을 그려냅니다. 제1수원지 건너 바로 앞에 편백숲은 피톤치드의 향을 쏟아냅니다. 걷다보면 만나는 다양한 동식물도 즐거움을 줍니다.



제1수원지

힐링로드 제5코스

장원봉-평두메 편 | 4.3km, 2시간 30분

자연유원지 삼거리로 시작으로 장원봉을 거쳐 평두메, 그리고 촌민사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긴 코스입니다. 장원봉 진입로에서 장원봉 정상까지는 숲길을 따라 경사가 매우 급한 비교적 힘든 구간입니다. 장원봉에서 평두메 계곡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탐방로 주변으로 다양한 육분류와 초본류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평두메

약사사

힐링로드 제7코스

약사사 편 | 2.1km, 1시간

증심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이 곳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가 들려주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자연, 역사에 관한 이야기 흥미를 더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의제미술관, 춘설헌, 녹차살상정 등 예술과 전통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백마늪산 신갈떡

힐링로드 제2코스

용추계곡 편 | 6.4km, 2시간 30분

용추계곡은 탐방객이 비교적 적어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한가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용연마을을 지나 제2수원지에 비친 신갈림자를 보며 용추계곡에 들어서면 시원한 폭포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와 머리를 식히기에 안성맞춤인 코스입니다.



용추계곡

힐링로드 제4코스

세인봉 편 | 5.7km, 2시간 30분

정상부 코스보다는 가까우면서도 광주시가지와 무등산국립공원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인봉과 동적골을 도는 코스입니다. 중간에 쉼터가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1km 정도는 매우 가파른 길이며, 바위와 자갈길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인봉에 이르기 전에 운소봉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곳부터 세인봉까지는 거의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세인봉

힐링로드 제6코스

원호광장-토끼등 편 | 3.3km, 1시간 30분

원호사, 늦게, 바람재와 토끼등까지 광주 도심 전경이 내려다보이고 덕산너덜을 끼고 있어 5월 봄꽃과 11월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토끼등 코스는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쉼터가 많아 초보 탐방객이라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덕산너덜

도원계곡

힐링로드 제8코스

무릉도원 편 | 5.2km, 3시간

도원탐방지원센터~규봉암-석불암-장불재-입석대-도원계곡을 돌아 내려오는 여정으로, 무등산을 병풍으로 둔 무릉도원인 도원마을에서 시작합니다. 규봉암은 무등산의 가장 큰 주상절리인 광석대 아래의 유서 깊은 사찰로 기암괴석이 많아 신라와 고려 때의 고승들이 수도란 곳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원계곡길은 옛날 화승 사람들과 광주 사람들이 큰 정을 보거나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다니던 길로 시원한 도원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는 힐링 숲길입니다.

힐링로드 제9코스

인양산 편 | 5.5km, 3시간

무등산 정상부까지 최단코스인 수인탐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백마늪산, 인양산을 타고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으로 내려오는 비교적 쉬운, 그러나 거리는 만만치 않은 코스입니다. 백마늪산은 장봉계에서 인양산에 이르는 비교적 편안한 능선으로 매년 5월 초순이 되면 산갈떡들이 분홍 용단을 깔아 놓은 듯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 가을철 하얀 억새가 이층담에 펼쳐지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꽃의 물결이 백마의 걸기를 덮았 daher 백마늪산이라 부릅니다.

